



보육인광장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Magazine

2019. Autumn+Winter

Vol. 07



CONTENTS

2019. Autumn+Winter
Vol. 07

발간사

03 행복한 아이를 위한 새로운 시작

보육 브리핑

04 포용국가 아동정책 「아동이 행복한 나라, 내일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

07 EDUCARE NEWS

보육 이슈

08 궁금해요! 어린이집 평가제

11 유아중심·놀이중심 공통 교육과정 - 개정 누리과정을 살펴보다

보육 플러스

14 Te Whariki_ 잘 짜여진 매트처럼 조화로운 뉴질랜드 유아교육과정

16 어린이집 선생님도 감정노동자입니다 - 감정노동 응대매뉴얼

센터 소식

육아종합지원센터 매거진 [보육인 광장]

발행일 2019년 10월

공동발행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전라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종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울산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충남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북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대표번호 : 1577-0756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연결됩니다.

발간사

2019. 보육인광장 Vol.07 02 03

행복한 아이를 위한 새로운 시작

우현경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애쓰고 계신 보육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우현경입니다.

2019년은 보육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왔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변화를 준비하는 해입니다. 우리는 보육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들에 대해 ‘과연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며 끊임없이 되묻고 협의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야 하는 전환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실시된 어린이집 평가제, 지난 7월 개정·고시되어 2020년 3월 시행 예정인 유아중심·놀이중심의 개정 누리과정,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보육교사를 배치하게 될 보육지원체계 개편 역시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환은 보육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 중에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 걸까요?

먼저, 어린이집 평가제는 아이들을 존중하고 안전하게 보육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일상을 상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어린이집 질 관리의 통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즉, 지표항목별로 점수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일정기간 열심히 준비하고 애써서 높은 점수로 평가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들에게 유아 스스로가 놀이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즐겁게 놀이하며 일과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사가 일과와 놀이를 잘 계획하여 아이들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그동안 장시간 아이들을 돌봐야 했던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오후 4시부터의 연장반 편성과 오후 5시 이후 연장보육료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영유아들에게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가 하루 종일 끝까지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와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의 삶에 대해 좀 더 변화된 획기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시행하느냐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새로운 변화와 시도들이 ‘어떻게 하면 영유아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더 가깝게 와닿을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고 노력하며,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 내일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

포용국가 아동정책

지난 5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아동 행복’이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내일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라는 비전 아래 4대 전략, 16대 과제(40개 소과제), 10대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23.)

4대 전략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4대 전략은 ‘보호권, 인권·참여권, 건강권, 놀이권’이다.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국가에서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생애초기부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놀이를 통해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주요 추진과제

비전

아동이 행복한 나라
“내일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

1-1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 혁신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 ▶ 위기사동 전수조사
1-2 보호대상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요보호아동 전담인력 배치 보호 종료 전·후 지원 ▶ 실태조사 및 지원
1-3 아동학대 대응체계 혁신 및 가족 회복 지원 강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1-4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최대한 가정형 보호	입양 공적책임 강화 ▶ 전문 가정위탁 도입
1-5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체계 내실화
1-6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

아동 권리 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

2-1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권리 강화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한계설정 체벌금지 캠페인 ▶ 아동권리 관련 부모교육 강화
2-2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아동총회(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결정)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
2-3 믿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가정내 돌봄지원(시간제보육 확대, 공동육아 활성화) 보육지원체계 개편 ▶ 국공립 확충

3

생애 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 건강

3-1 건강한 신체를 위한 예방·조기발견·사후관리 강화	모바일 기반 임신부 지원 가정방문 생애 초기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도입 아동 치과추진의제 도입
3-2 마음건강 예방 및 관리 강화	학령기 마음건강 관리 강화(전문상담교사 확충)
3-3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건강 취약아동	만성질환·중증질환 집중관리 장애아동 의료접근성 강화

4

창의성·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

4-1 지역사회 놀이혁신 추진전략	놀이혁신위원회 설치 ▶ 부모·교사 인식 전환 캠페인
4-2 지역사회 주도의 놀이혁신 확산	놀이혁신 선도지역 지정확산
4-3 다양한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확산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활동공간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확대) 자연 속 놀이터 및 체험프로그램 확산 (산림교육센터·유아숲체험원 확대)
4-4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어린이집·유치원 바깥놀이 및 자유놀이 시간 확보 놀 권리 보장되는 프로그램 활성화

※ 포용국가 아동정책 주요 추진과제를 일부 요약 정리한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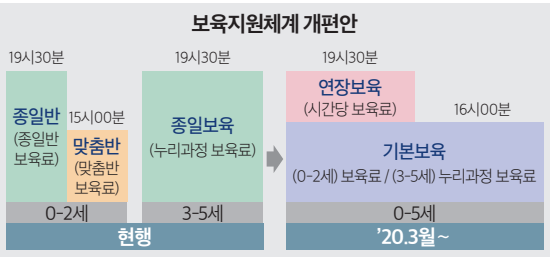


내년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오후 4시까지)과 연장보육(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 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개편안에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에는 현행 담임교사가,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되는 것을 담고 있으며, 현재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던 보육료도 기본보육료와 연장보육료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다만 연장보육은 유아(3~5세)는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이용 가능하다. 또한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4시 이후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함으로써 담임교사의 업무부담 경감과 근무여건 개선으로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시, ‘장기 미종사자 교육’ 받아야

2020년 3월 1일부터는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이하 장기 미종사자교육)을 받아야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개정에 의한 것으로 ‘장기 미종사자교육’은 9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 중이며, 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chrd.childcare.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및 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1661-5666

올해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 9월 25일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 설치된다.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는 ‘1670-2082’

지난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윤희정)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학부모 등이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다양한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신고번호 1670-2082). 또한 이용불편·부정신고의 빠른 조치를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 내 현지조사지원팀이 접수된 민원 중 심각민원, 사회적 이슈기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지원한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서비스 기관 통합 -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지난 7월 16일, 포용국가 아동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서비스의 통합지원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요보호아동지원(중앙입양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요보호아동자립지원(아동자립원단, 디딤씨앗지원단), 아동돌봄(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실종대응(실종아동전문기관)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곳이다. 이외에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정책지원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도 반드시 ‘안전교육’ 받아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19.6.12)에 따라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교육은 ‘사이버 교통신호(cyedu.koroad.or.kr)’에서 실시하며, 교육을 받지 않고 이미 탑승하고 있는 동승보호자라도 즉시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통학버스 동승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영유아 관련 ‘포용국가 아동정책’ 살펴보기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근본적인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영유아와 영유아 부모를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40개 소과제 중 보육과 관련있는 내용을 몇 가지 추려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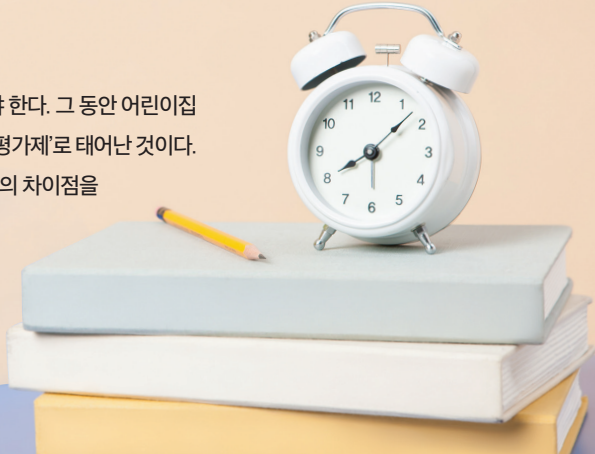
학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강화	● (위기아동 전수조사) ’19년부터 연 1회 만 3세(전년도 말 기준) 유아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전수조사 실시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실화) 아동수당 미신청 등 연계 추진(’19.12월), ’18년 아동학대 사망사건 사례분석(31명)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추가정보 발굴·연계(’19.12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내실화
아동 권리가 보장되는 가정을 위한 교육 강화	아동발달과정 이해, 양육스트레스 관리,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양육 등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 ● 주민센터, 어린이집, 병원 등 영유아 부모가 자주 찾는 장소에서 교육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아동수당 등 신청 시 교육 홍보 *’19년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양육스트레스 관리 등 온라인 부모교육 4종’ 개발 중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보육 서비스 질 제고	● 시간제보육 시설 확대 및 읍·면·동 마을 단위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보육지원체계 개편: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원칙을 유지하면서,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보육의 질 제고(’20. 3월부터 적용) ● 국공립어린이집 및 국공립유치원 확충으로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 달성(’22년→’21년)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및 소아당뇨 지원	● (신생아기) 영아돌연사 예방, 고관절 탈구 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추가 검토 ● (유아기: 4~6세) 아동 발달에 치명적인 언어·학습 장애 등 예방을 위한 난청검사(순음청력검사), 안과검사(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 등 추가 추진 ● (소아당뇨) 학교, 어린이집 등에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배포(’19년)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전환 추진	놀이가 아동의 창의성, 사회성, 정서·신체 발달, 인지·언어 발달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부모와 자녀 간, 친구 간 놀이 방법과 기술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 제공 * 관련 영상 및 홍보물 제작·배포, 육아인플루언서를 통한 SNS 확산 *「100인의 아빠단」 운영 상 놀이 부문을 확대, 체험 내용을 각종 온라인 매체에 전파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활동공간·자연 속 놀이터 확대	● (영유아 안심 놀이 공간 확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 체험실*을 확대하여 영유아가 미세 먼지, 폭염, 혹한에도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 제공 *’18. 183개소 운영, ’19. 60개소 추가 ● (산림교육센터·유아숲체험원 조성 확대) 유아가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면서 건강한 삶과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센터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 놀이 시간 확보	누리과정을 유아의 자율·창의·융합 능력을 키우는 ‘놀이중심’ 과정으로 개편하여 시행(’20. 3월 적용) - 또래와 상호작용하여 놀이할 수 있는 바깥놀이 및 자유놀이 1일 1시간 이상 확보

궁금해요! 어린이집 평가제

'19. 6. 12. 모든 어린이집 평가 의무화 시행

2019년 6월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 동안 어린이집 신청에 의한 인증제로 운영되었던 평가인증제가 보편적인 질 관리를 위해 '평가제'로 태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평가제는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평가인증제와 평가제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궁금증을 해소해 보자.

* 출처: 한국보육진흥원(2019). 2019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어린이집용), 어린이집 평가제 홈페이지(<http://kce.kcpi.or.kr/>)



평가제란 무엇일까?

평가제란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실현하여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평가인증'이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인증' 형태로 진행된 것이라면, '평가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어린이집 제외)이 대상이며,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또한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참여수수료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평가제 개편 방향

-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국가 수준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영유아가 자유롭게 놀이를 즐기고 일과를 통해 존중받도록 하며, 급·간식 및 안전관리를 통해 안심보육환경 조성 강조
- 보육교사의 평가업무 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 직무역량 강화 등을 통해 영유아 보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평가지표 주요 내용

- 지표 수 축소 및 지표별 평가항목 수 균형 배치: 21지표(79항목) → 18지표(59항목), 지표별 평가항목 수 평균 3~4개
- 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 강화
- 영유아 권리 존중(1-1) 필수지표 지정: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교사는 영유아를 차별 없이 대한다.
- 급·간식 위생 및 안전 항목 중 필수요소(8개) 지정
 - (3-2-2-①)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보관함
 - (3-2-2-②) 유통기한 경과 식품(식자재 등)이 없음
 - (3-2-3-③) 1회 조리된 음식은 당일 소모하고 재배식하지 않음
 - (3-4-1-④) 영유아의 인계과정이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이루어짐
 - (3-4-2-④) 영유아를 두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책임 있는 성인에게 인계함
 - (3-4-3-④)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
 - (3-5-2-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영유아학대예방교육 포함)
 - (3-5-2-④)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제별 금지 포함)을 준수함
- 보육교직원의 처우, 스트레스 관리 관련 지표 강조, 직무역량 제고 항목 강화

평가인증제와 평가제는 무엇이 다를까?

구분	평가인증제	평가제
평가대상	•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	• 전체 어린이집
평가절차	• 어린이집 신청 → 기본사항 확인 →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총 4개월)	• 평가대상 통보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총 3개월)
	• 참여 수수료 어린이집 납부	• 참여 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
	• 기본사항: 필수항목 9개, 기본항목 - 필수항목 미준수는 참여 제외, 기본항목 미준수는 차하위 등급 부여	• 기본사항: 사전점검사항 5개, 위반이력사항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는 D등급 부여, 위반 이력사항 발생 시 차하위 등급 부여
	•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결정	•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결정 *필수지표 및 요소 미충족 시 A등급 불가
	• 재참여, 재평가 과정 운영	• 재참여, 재평가 과정 폐지
평가결과	• 4등급(A, B, C, D), D등급 불인증	• 4등급(A, B, C, D)
평가주기	• (유효기간) 3년(A등급 1년 연장 가능)	• A, B등급 3년/ C, D등급 2년
결과공표	• 평가받은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인증 결과, 인증이력 등 공개	• 전체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결과, 평가이력 등 공개
사후관리 및 등급조정	• 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확인점검(무작위, 월 단위 시기 안내) - 확인방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1년 이상 재직교사로 대표자변경, 주소변경) - 인증유효기간 종료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인증취소	• 평가 등급별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사후방문지원(C, D등급 의무 실시) - 확인점검(평가 관련 민원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정보공시 부실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불시점검) • 평가등급 조정 및 관리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최하위 등급 조정
결과활용	• 인증어린이집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평가 등급별 행·재정적 지원 • 지도점검 연계(2회 연속 D등급 어린이집)



평가제 정보는 여기에서...

어린이집 평가제 홈페이지(<http://kce.kcpi.or.kr/>)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어린이집 평가제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평가제 홈페이지는 '평가제 일정, 지표교육 안내, 자주하는 질문, 관련 자료'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어린이집 평가 지표교육 운영

한국보육진흥원 온라인교육(<https://edu.kcpi.or.kr/>) 사이트에 '어린이집 평가 지표' 교육이 개설되었다. 온라인으로 평가지표를 학습하여 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발된 학습 콘텐츠로 총 4개의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집 평가지표 FAQ



(1-2-4-①) 유아의 경우, 바깥놀이를 매일 1시간 이상 운영할 때 오전 30분, 오후 30분으로 배정해도 되나요? 그리고 혼합연령반의 경우 바깥놀이 시간은 어떻게 배정해야 하나요?



바깥놀이는 하루 일과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혼합연령반의 경우,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바깥놀이 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1-2-5-③) 특별활동 강사의 사정으로 오전에 보강을 실시해도 되나요?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일과 중 오후 시간대에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활동 강사의 사정으로 이루어지는 보강이더라도 오전에 실시되는 경우 N 평정됩니다.



(1-5-1) 보육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평가지표 <1-5-1-① 반별 보육일지에 영유아의 하루 일과와 놀이실행에 대한 평가기록이 있음>에서는 영유아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놀이와 활동을 하였는지, 어떻게 놀이와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보육일지에 반별로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보육일지에는 영유아의 하루 일과를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개별 영유아 또는 또래 집단의 놀이와 활동, 교사가 계획한 활동과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일어난 놀이와 활동을 기록해야 하며, 놀이와 활동을 실행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매일 기록합니다. 이때 이루어진 모든 놀이와 활동에 대한 평가를 기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가 및 추후 놀이지원, 보육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활동에 대해서 보육일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육일지에 기록한 놀이와 활동, 일상생활 등에 대한 평가는 이후 놀이지원 계획 또는 보육계획 수립 시 연계되므로, 매일 하루일과와 놀이실행에 대한 평가가 영유아의 놀이지원 및 보육계획 수립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2-1-②) 정원 50인 미만 어린이집으로, 인가공간 내 옥외놀이터가 없고, 어린이집과 인접한 인근놀이터도 없는 경우 어떻게 평정되나요?



본 평가항목에서는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를 구비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다만, 정원 50인 미만 어린이집으로 인근에 놀이터가 전혀 없거나 실제 이용이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어린이집 인가공간 내 유취실(대근육활동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면 실내놀이터의 기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정합니다.



(3-2-1-④) 영유아별 식품 알레르기 질환을 조사한 결과, 현재 식품 알레르기 질환아가 없는 경우에도 식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나요?



식품 알레르기는 대부분 출생 후 1-2년에 발병하며, 다양한 종류의 음식에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영유아의 경우 출생 후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으나, 어린이집에서 처음 접하는 식품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질환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해당 지침을 마련하고 부모에게 이를 안내해야 합니다.



(4-2-2-①) 교재교구 등 어린이집 물품을 보관해두는 장에 여유 칸이 있는데, 그 공간을 교사가 개인사물함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사물함은 교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장소(보육실, 교사실 등)에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품 보관장의 칸이 분리되어 있어 한 칸에는 어린이집 물품을 보관하고 나머지 한 칸에 교사 개인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면 개인사물함으로 인정 가능하나, 바꾸니나 칸을 이용하여 교사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 명이 한 사물함을 공동사용하거나 교재교구 등을 함께 보관해두는 경우는 개인사물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처: 어린이집 평가제 홈페이지

유아중심·놀이중심 공통 교육과정 - 개정 누리과정을 살펴보다

'19. 7. 24 개정 누리과정 고시, '20. 3월 시행

지난 7월 24일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3-5세 누리과정'이 개정·고시되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과정으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전부 개정되어 내년 3월부터 '3-5세 누리과정'이 어린이집 현장에 적용된다.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중심·놀이중심'으로 교사 주도 활동을 지양하며, 유아의 관심과 흥미에 따른 주도적·자발적인 놀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참고: 3-5세 누리과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2호)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또는 우리 반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우리들'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새롭게 개정된 '3-5세 누리과정'은 교실의 주인이 '유아'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자발적인 놀이를 통해 즐겁게 성장하는 것을 지지하는 공통 교육과정이다.

기존의 누리과정에서도 '유아', '놀이'가 강조되기는 했지만, 실상은 '교사', '계획', '활동'이라는 단어가 중심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유아반에는 항상 흥미영역 표시가 있고, 유아들의 놀이는 흥미영역 안에서 자유로웠다. 교사는 유아의 하루일과를 분단위로 나누어 계획하고, 계획한 순서대로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달리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가 주체성과 능동성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운다는 인간 중심·경험 중심의 교육과정 철학에 기반한다.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통해 물입과 즐거움 속에서 자율·창의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현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4대 전략 중 '놀이권'과도 연장선상에 있다.



누리과정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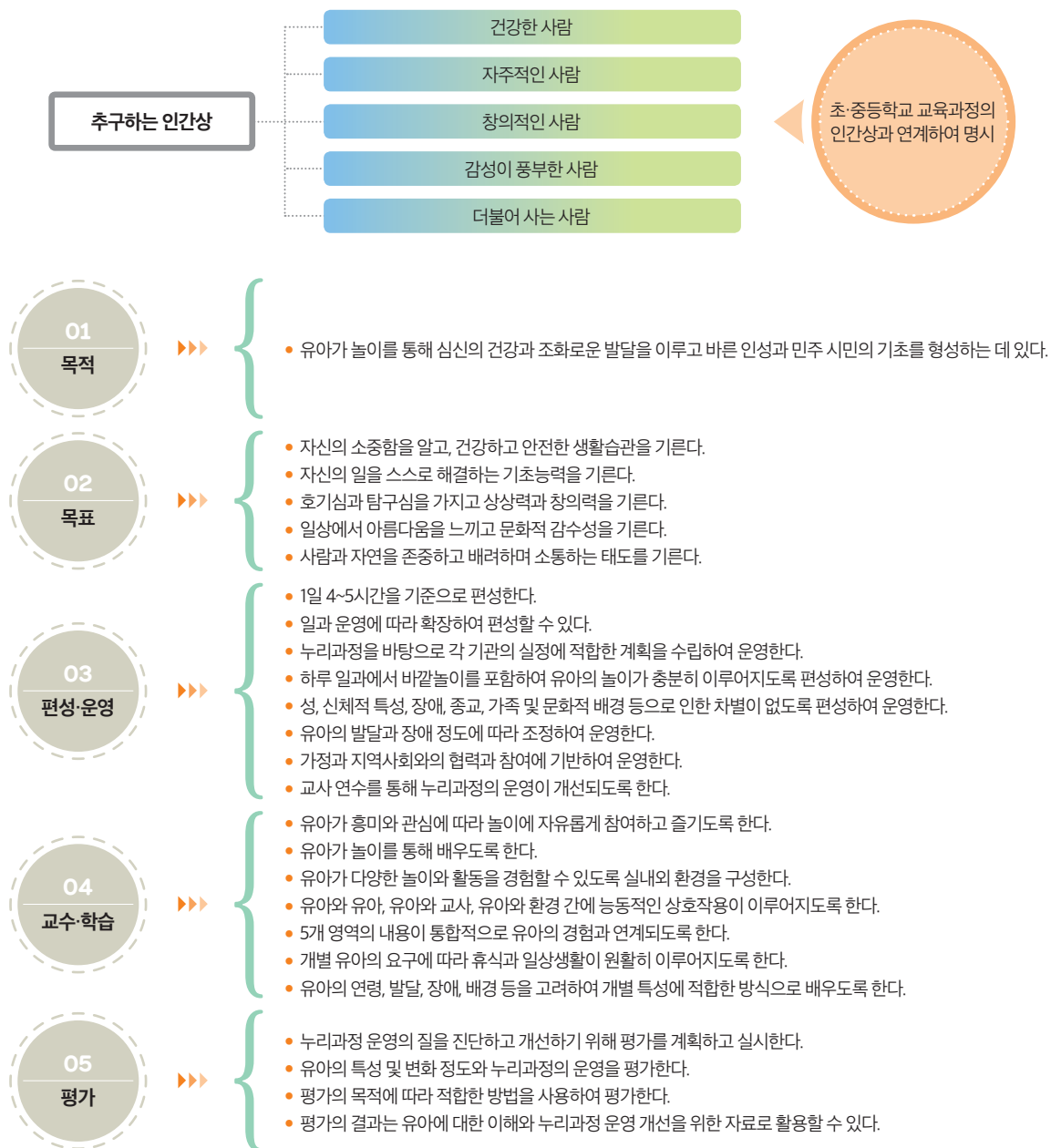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 나.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 다.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 라.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 마. 유아, 교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력 지원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되다 보니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놀이중심을 반기면서도 혼란스러워하고, 부모는 아이들이 놀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현장의 혼란과 부모의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교사들이 개정 누리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해설서, 놀이이해자료, 놀이실행자료, 놀이사례집’을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에게는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홍보자료와 부모교육 자료 등을 배포하여 부모의 놀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더불어 올 11월부터는 3-5세 누리반 담당 교사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 될 예정이다.

3-5세 누리과정 총론



내용구성의 간략화를 통한 현장 자율성 확대

개정 누리과정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서 ‘연령별’이 빠진 ‘3-5세 누리과정’으로 변경되었다. 교육과정의 5개 영역은 유지하되, 영역별 목표 및 내용에서 ‘연령별’ 세부내용(369개)을 삭제하고 연령 통합(59개)된 내용으로 간략화한 것이다. 내용구성의 간략화를 통해 어린이집 상황과 유아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방식이 발현될 수 있도록 현장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개정 누리과정은 기존 누리과정에서 영역별로 상이했던 내용범주의 개수를 영역별로 3개로 동일하게 통합·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관계 영역’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 알고 조절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의 3가지 내용범주로 구성된 내용을 ‘더불어 생활하기’로 통합하여 기술한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3-5세 누리과정 영역별 내용범주

영역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정) 3-5세 누리과정
신체운동·건강	신체인식하기	신체활동 즐기기
	신체 조절과 기본 운동하기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의사소통	듣기	듣기와 말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사회관계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조절하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	
예술경험	아름다움 찾아보기	아름다움 찾아보기
	예술적 표현하기	
	예술 감상하기	
자연탐구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탐구과정 즐기기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Te Whariki

잘 짜여진 매트처럼 조화로운 뉴질랜드 유아교육과정



* 이미지 출처: 뉴질랜드 베스트스타터어린이집

뉴질랜드는 유럽인과 마오리족 등 다양한 종족이 어우러져 있는 다문화국가이다. 다문화국가이기에 뉴질랜드의 교육과정은 다양성과 관계, 소속감 등을 중시하며 특히 영유아의 자유로운 놀이를 지지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바탕으로 아동의 놀이권을 4대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 고시된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은 '유아중심·놀이중심'이다.

*참고: 2019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해외보육정책연수보고서, 뉴질랜드 교육부 사이트(<http://www.education.govt.nz/>)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

1877년 교육법을 제정한 뉴질랜드는 영국의 교육제도를 계승하였으며 전인교육을 추구한다. 6세부터 16세까지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며 최장 19세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는 유아교육에 대한 아동 당 비용지원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정부예산의 1/6을 지출할 만큼 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배분하자는 것이 뉴질랜드의 교육이념이다.

뉴질랜드의 교육은 유아교육, 초·중·고등학교 교육, 대학교의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학습능력에 따라 여러 가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다. 유치원은 5세까지 다니며 6세(만 5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뉴질랜드는 유·보통합국가로 교육과정 개정 및 질 관리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인 교육부에 있으며 예산 집행은 주정부에서 시행된다. 또한 3-5세 아동은 주 20시간까지 무상보육 지원을 받는다. 교육평가청(ERO)에서 유아교육기관을 평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Te Whariki (테 와리키)'라 불리는 유아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유아교육기관들

뉴질랜드에는 운영주체, 운영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아교육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며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kindergarten)은 3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들이 오전 수업 혹은 오후 수업을 받으며 오후는 일주일에 3회, 오전은 일주일에 5회 운영된다. 유치원 프로그램에 부모참여가 권장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유치원이 운영되기도 한다.

유치원 외에도 학부모가 중심이 되는 놀이센터(Playcenter), 마오리 언어집중훈련센터인 '테 코항아 레오(kohanga reo)', 수업시간제, 종일제 등으로 운영되는 보육센터(childcare), 원격교육기관인 통신학교(Correspondence School) 외

가정 탁아소(family daycare), 지역사회 놀이집단(Community playgroups) 등이 있다.

뉴질랜드 유아교육과정 _ Te Whariki(테 와리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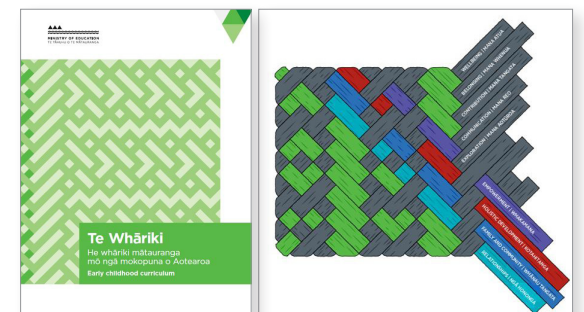
뉴질랜드 유아교육과정인 'Te Whariki(테 와리키)'는 1996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마오리 원주민 언어로 '잘 짜여진 매트'를 뜻한다. 출생부터 5세까지의 모든 뉴질랜드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며 교사, 부모, 가족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또한 다양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의 철학, 구조, 방향, 목적 등에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Te Whariki(테 와리키)' 유아교육과정은 4개의 원칙, 5가지 기준, 18개의 목표, 20개의 학습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4개 원칙은 '능력부여의 원리(EMPOWERMENT)', '총체적 발달의 원리(HOLISTIC DEVELOPMENT)', '가정과의 협력(FAMILY AND COMMUNITY)', '관계(RELATIONSHIPS)'로 구성된다. 아동 스스로 잠재성을 발달시키고, 학습과 성장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반영하며, 다른 문화를 이해하여 존중하고 가정과의 협력 속에 관계를 통해 학습한다는 원칙이다.

5가지 기준은 '웰빙(WELLBEING)', '소속감(BELONGING)', '사회공헌(CONTRIBU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탐색(EXPLORATION)'으로 각 기준은 영유아가 발달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와 성향을 포괄한다. 'Te Whariki(테 와리키)'는 위에서 제시한 4개의 원칙과 5가지 기준이 씨실과 날실처럼 잘 짜여져 있는 형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Te Whariki(테 와리키)'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교육부 사이트(<http://www.education.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다.

Te Whariki 유아교육과정



“어린이집 선생님도 감정노동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을 위한 감정노동 응대매뉴얼



I 어린이집 업무도 감정노동 일까?

1 감정노동이란?

감정노동이란 고객을 대할 때 조직이 원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실제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숨기고 억제하는 것을 말함

2 어린이집 업무와 감정노동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유경숙, 2018)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의 감정노동은 역할수행에 따른 감정조절, 학부모와의 불균형적 관계, 사회적 인식에 따른 교사의 이미지와 관련 있음

3 감정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신적	우울, 불안, 적응장애, 정신적 탈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체적	피로감 증가, 불면증, 소화기 질환, 고혈압, 뇌심혈관계 질환, 요통, 근골격계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사회적	직무만족도 감소, 결근, 이직 등이 발생할 수 있음

II 어린이집 교사의 감정노동

1 우리 어린이집의 감정노동을 파악해 보세요.

A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 예시 (폭행, 폭언, 협박 및 위협, 성희롱, 모욕, 누명 등)	- 욕설, 폭언: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친 상황에 대해 교사의 책임 소홀과 부주의에 욕설을 하고 시간에 상관없이 전화와 문자로 끊임없이 폭언함 - 협박 및 위협: 언론 및 관할기관에 고소 고발하겠다고 협박함 - 성희롱: 외모 및 몸매 등을 비하하며 성적으로 희롱함
----------	--	---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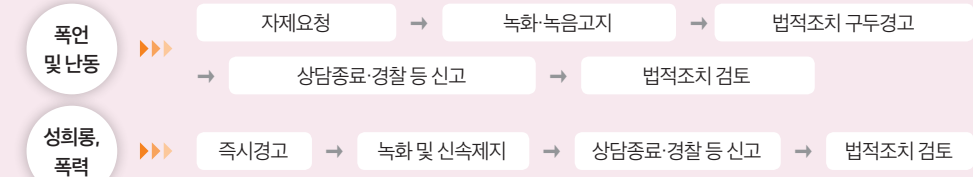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유형 예시
(업무방해, 억지 주장, 과도한 요구 등)

- 업무방해: 등원시간에 자신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만 하며 다른 원아들의 등원지도 업무를 방해함
- 억지주장: 어린이집에서 공유되는 아이의 사진이 적다며 교사가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고 주장함
- 과도한 요구: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어린이집에서 원장 및 교사가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

2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대응방안

A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폭행, 폭언, 협박 및 위협, 성희롱, 모욕, 누명 등)



응대 예시문

“지금부터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녹음, 녹화(CCTV, 스마트폰 촬영, 녹음 등)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의 이런 말씀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위법행위로서 관련 법령(형법 제311조 모욕, 제283조 협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B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업무방해, 억지 주장, 과도한 요구 등)



C

폭력 및 폭언 등의 문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교사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휴식시간을 제공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제79조)

관련법규	폭언/협박	형법 제283조(협박),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신체적 폭행	형법 제257조(상해), 형법 제260조(폭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19호(불안감 조성)
	성희롱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임재영 의사가 이야기하는 감정노동 관련 이상 증상

-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든다.
-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치솟는다.
- 하는 일이 부질없다고 생각된다.
- 만성적으로 감기나 두통, 요통, 소화불량과 같은 신체 증상에 시달린다.

3 감정노동 이렇게 예방합니다.



부당한 감정노동을 중단할 수 있어요



감정노동의 자기보호법

일과 나와의 분리	'일 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 역할을 하는 거야'라며 자신과 업무를 분리시킨다.
스스로 격려하기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기 암시나 훈장말을 한다.
분노 조절 훈련	심호흡, 자극 피하기, 관심 바꾸기, 용서를 통한 해소로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적당한 공간에서 소리 지르기 등으로 분노감정을 해소한다.
생각 멈추기	심리적인 상처는 자주 반복해서 생각나기 마련으로 '이제 그만!'이라고 속으로 외쳐서 생각을 멈춘다.



감정노동 예방과 직무스트레스 관리

-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되면 그에 대한 부담감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 나 아닌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친절을 '나 자신'에게도 수시로 베풀다.
- 어린이집 교사 이전에 '나'라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다.
- 지금, 여기에 집중한다.
- ➔ 직장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현재 머무는 장소에서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현재 보고 듣고 있는 것들에 초점 맞추기



참고 안내

- 직무스트레스 점검 및 평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지침(KOSHA GUIDE)" 활용
- 감정노동 응대업무에 따른 폭언, 폭행 예방에 대한 인쇄물, 스티커, 포스터 등을 어린이집 게시판에 부착-안내
※ 보육교직원 인권존중 포스터는 추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1577-0756)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및 감정노동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센터 소개

설립일 2000.03.
센터장 이남정
위탁체 숙명여자대학교

주 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 3층
전화번호 02-772-9814~9
팩스번호 02-772-9820

●●● 주요 사업

어린이집 지원 • 놀이와 영유아 중심의 맞춤 컨설팅 •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컨설팅 •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사 지원사업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사업 •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 보육교직원상담	가정양육 지원 • 우리동네 보육반장 • 아이조아 아빠교실 • 녹색장난감도서관 • 양육자료개발 • 부모교육 • 아이사랑플래너(양육상담)	자치구센터 지원 • 자치구센터 사업관리 및 지원 • 서울 자치구센터 모니터링 • 직원역량강화교육 • 서울시 및 자치구센터 직원 워크숍 • 홍보사업
--	--	--

●●● 센터 이용방법

[오프라인 센터교육]

신청대상 부모 및 보육교직원
신청방법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교육신청)
교육내용 서울시 보육사업 운영의 다양한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보육교직원 교육, 유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홈페이지 <http://seoul.childcare.go.kr/>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이용]

홈페이지 http://seoul.childcare.go.kr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oul-cente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ccc
트위터 https://twitter.com/sccc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seoulcenter/	카카오톡친구 https://pf.kakao.com/_vxmwixl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서비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보육지원, 양육지원, 자치구센터 지원과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모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맞춤 정보 제공

보육교직원, 양육자 맞춤 정보 제공



직종별 구인·구직

대체교사,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 직종별 구인·구직 정보제공



25개 자치구 센터 정보 제공

장난감도서관, 행사, 교육 등 정보 제공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블로그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벤트 및 행사 소식, 전문상담, 웹툰, 블로그 기자단의 다양한 육아정보, 보육정책 등 유익한 양육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적응을 못해서 걱정이예요.

전문가 팁/전문가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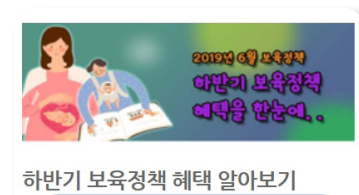
육아전문가가 알려주는 전문가 칼럼, 전문가 상담



혹시 우리 아가가 세 살의 불치병 심어받게 걸려있진 않나요?

웹툰

아이의 심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육아심리 전문가 찰싹떡가루님의 육아심리 웹툰



하반기 보육정책 혜택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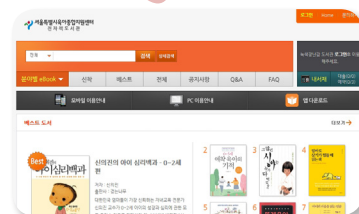
보육정책

한눈에 쏙쏙 들어오는 보육정책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자책 도서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자책 도서관 사이트에서 양육 및 보육 관련 E-Book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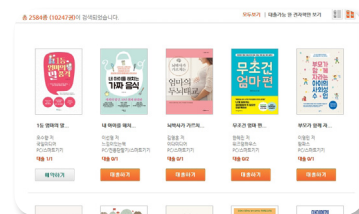


보유도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육아 관련 서적

10,000여 권 보유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소개

서울시 생태친화형 보육사업

생태친화보육은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자연 친화, 여유 있고 편안한 일과, 구성원의 소통과 협력 등을 통하여 자연, 사람, 사회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영유아가 존중받고 성장하는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는 보육을 의미합니다.



2019년 4개 자치구(강서구, 도봉구, 영등포구, 서초구) 진행

확대 추진계획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로 확대

어린이집 컨설팅

놀이와 영유아 중심의 맞춤 컨설팅



‘놀이와 영유아 중심의 맞춤 컨설팅’은 보육과정 운영에 관한 맞춤 컨설팅으로, 전담 컨설턴트가 놀이 및 영유아 중심의 보육과정 운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평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보육교직원의 역량 및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서울시 내 신청 어린이집(자치구센터 모집)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보육과정과 관련된 수업공개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함

내용 전담컨설턴트가 어린이집에 4회 방문하여 교사가 영유아 및 놀이 중심의 융통성 있는 보육과정 운영 시 겪는 개별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존중과 공감의 영아보육컨설팅



‘존중과 공감의 영아보육컨설팅’은 서울시 국공립 전환 및 신규 소규모 어린이집의 전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월령별 영아보육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에 중점을 두어 영아보육과정의 올바른 적용을 지원하고 교사의 역량 및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서울시 국공립 전환 및 신규(40인 미만) 어린이집
내용 전담 컨설턴트가 어린이집에 4회 방문하여 「서울시 월령별 영아보육프로그램」을 토대로 존중과 돌봄에 기초한 영아보육과정 운영을 지원

소통과 협력을 통한 셀프컨설팅



‘소통과 협력을 통한 셀프컨설팅’이란 어린이집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셀프컨설팅 과정을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시키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서울시 국공립 전환 및 신규(40인 이상) 어린이집
내용 동일한 주제를 선정한 어린이집 그룹을 대상으로 원장 소그룹 컨설팅 4회, 교사 소그룹 컨설팅 1회 및 방문컨설팅 1회를 제공하여 어린이집의 셀프컨설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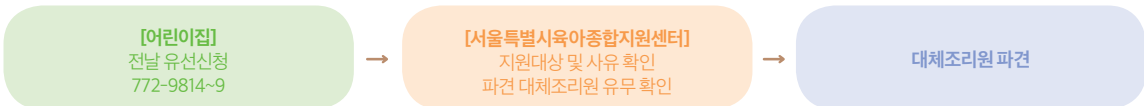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소개

서울시 대체조리원 사업

어린이집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병가, 직계존(비)속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체조리원을 1일~3일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조리원이 임면 보고된 어린이집(보육도우미, 취사보조 안됨)

-신청방법



신청 사유 및 지원 기간

우선순위	신청사유	지원기간
1순위	직계존(비)속 사망	사망일을 포함한 5일 이내 1일~3일
	병가	1일~3일
	기타(아동학대 후속조치)	1일~3일
2순위	연차, 결혼, 위생교육	1일~3일

※ 2순위는 오후 2시까지 대기 후, 1순위 사유가 없을 시 접수 선착순 지원

-지원 일수 제한 어린이집 개소 별 연간 최대 6일

-적용 기간 2019년 1월 ~ 12월 31일까지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어린이집 지원

2019년 서울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가이드 교육

- 일시 2019년 11월 6일(수), 7일(목) 13:30~17:40
- 대상 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 장소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
- 내용 장애아 통합의 이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과정, 장애아 통합을 위한 협력
- 신청방법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교육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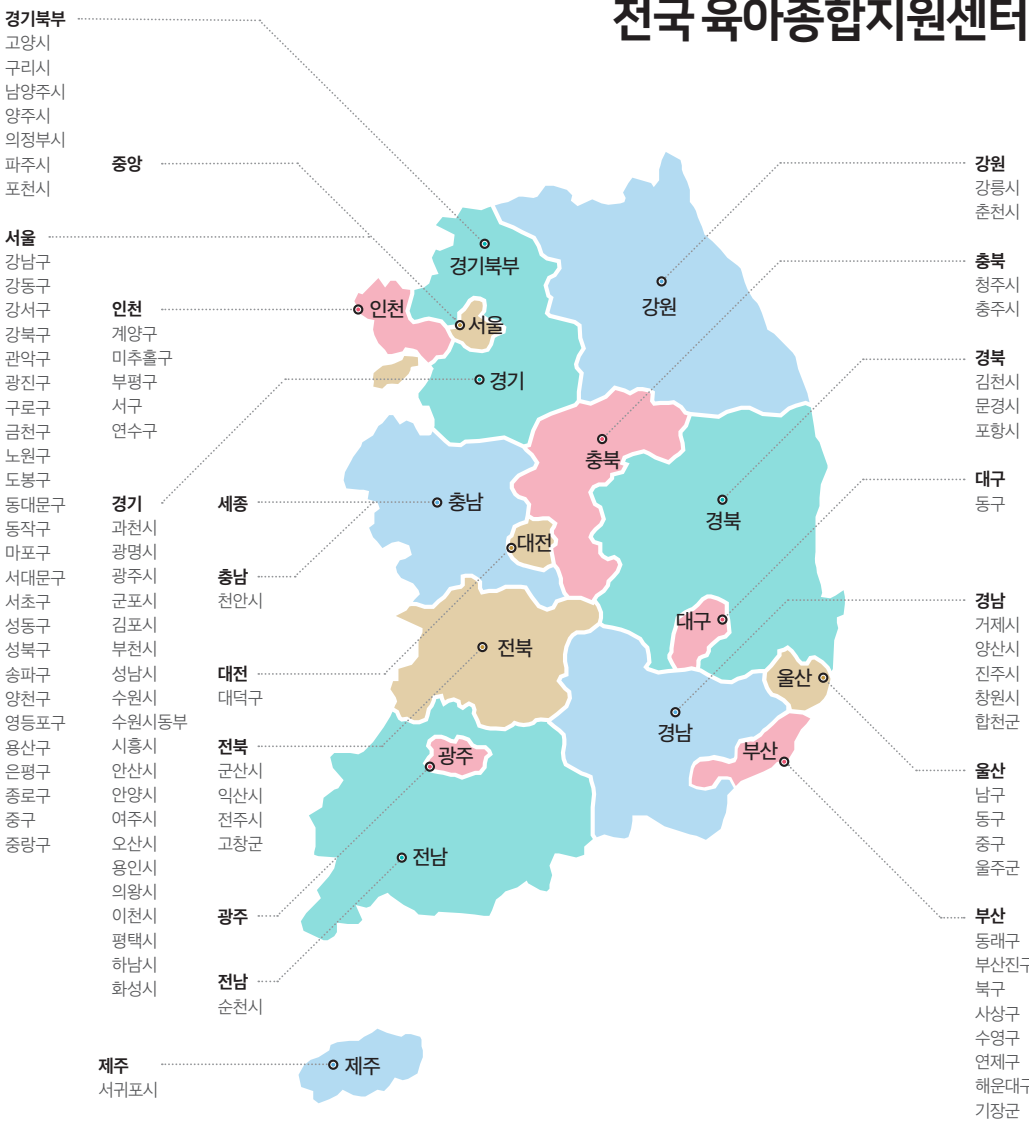


2019년 서울시 어린이집 개정 누리과정 집합연수

- 일시 2019년 11월부터 예정
- 대상 2020년 만 3~5세반을 맡을 예정인 보육교사
- 장소 서울시청 다목적홀 등
- 내용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의 이해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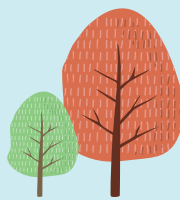
육아종합지원센터는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전국 18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90개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총 109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번호 : 1577-0756



육아종합지원센터 매거진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Magazine



알찬 정보와 따뜻한 감성으로 보육인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